

사설

새로운 현실, ‘뉴노멀’

연말을 한 달 남겨둔 시점이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것은 3월 초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이었다. 이후 확산세는 잠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곧 광화문 집회와 이태원 클럽 등을 고리로 재확산 됐다. 근래에 들어서는 감염원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동시다발적인 3차 대규모 확산이 이뤄지면서 방역당국은 다시금 좌절을 맛보고 있다.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시행되면서 직장, 학교, 거리 등 익숙했던 공간은 ‘비대면’이라는 단어로 대체됐다. 개인부터 단체까지 온 사회가, 모든 구성원이 혼란을 경험했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도 상황은 같았다. ‘캠퍼스’라는 중심점을 잃은 교수, 직원, 학생과 같은 대학 구성원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혼란함을 견뎌야 했다. 교육도 난항을 겪었다. 하루아침에 비대

면으로 전환된 교육환경은 수업을 제공하는 이와 제공받는 이, 그리고 그 과정을 지원하는 이까지 당황시키기에 충분했다.

본부와 개별 자치 기구, 동아리나 학회 등 단위별 상황도 마찬가지로 일례로 본부는 연일 변하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골머리를 앓았다.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확정지어야 했을 학사일정을 이후로도 시시각각 수정해야 했다. 입학식과 졸업식 취소는 시작에 불과했고 이후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행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해질 정도였다.

학생대표들 역시 “소통에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모임도 위축됐다. 역시 함께하는 공간의 부재가 만들어낸 어려움이었다. 그들의 어려움이 헤아려지는 것은 대학주보 역시 개강호

연기라는 유례없는 일을 겪었고 비대면이라는 낯선 방식으로 신문을 제작하게 된 까닭이다. 온 캠퍼스가, 모든 구성원이 그야말로 혼란 속에 있는 듯 보였다.

처음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는 곧 지나갈 일상의 불편함 정도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외려 불편하기만 했던 마스크가 일상이 됐다. ‘캠퍼스’라는 공간의 부재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최근 3차 확산을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의 삶, 일상의 회복이 당장에 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확산의 여파가 내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현 상황이 일단락되지 않은 채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당연히 내년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새해를 암울하게 시작할 이유도 없다. 다만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마땅히 돌아봐야 한다. 올해를 살며 코로나19로 잃을 뻔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말시험에서 대면 시험 방식을 놓치면서도 공정성을 잃을 수 없어 기발한 비대면 시험 방식을 고민하는 것처럼. 대면 선거를 잃었지만 온라인 유세와 투표를 고안해낸 것처럼. 방식은 바뀌어도 가치는 지키기 위해 우리는 디터지지 않는 새로운 중심점을 찾아야 한다.

지전에 있던 물과 공기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를 누가 상상이나 했던가.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병에 물을 담아 팔고 그것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 맑은 공기를 위해 공기정정기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 속에서, 유행가처럼 너도나도 부르던 ‘뉴노멀’도 이제는 현실이다.

세시봉

우리의 책임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와 눈길을 모았다. 자신을 ‘조은산’이라는 필명으로 칭한 청원인은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굿어 살피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다. 청원 내용의 상서에 관한 시비나 호소를 떠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만큼은 깊은 존경의 뜻을 보내고 싶다.

예로부터 “천하의 흥망은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했다. 귀천의 유별이 있던 왕조 시대를 산 옛사람들도 그 말을 옳게 여겼거니와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에야 어떨까.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노파심에 한 가지 말을 보태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대통령을 ‘폐하’라 일컫고 있다. ‘폐하’는 군주를 부르는 말이며, 계단 아래 엎드려 올려다 뵈는 분이라는 뜻이다. 천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사라면 엎드려 ‘폐하’라 불려야 마땅하겠지만, 시민들이 투표로 주권을 잠시 위임한 대표자인 대통령은 굳게 서서 마주 보고 ‘대통령님’이라 부르면 족하다. 임금께는 상소하며 굿어살피시기를 바라야겠지만, 대통령에게는 직분과 공약을 지키라 요구하면 된다.

물론 대통령을 임금에 빗대는 표현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비유는 아니라는 점도 있거니와 남이 공들여 쓴 글에 공연한 생트집을 잡는다고 흥을 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공자는 바른 정치의 첫걸음은 정명(正名),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했다. 그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했다. 부르는 이름과 실상이 부합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을 오늘날 정치에 새기자면 대표자는 대표자답고 주권자는 주권자다워야 한다고 할 것이다.

천하의 흥망과 마찬가지로 천하의 정명에도 필부의 책임이 있는 법이니, 주권자로서 함부로 남의 발아래 엎드리기를 자청해선 안 될 일이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피땀이 서렸는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빈자리의 의미

뒤늦은 부고를 전하는 이유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오늘도 새로운 이름이 지면을 장식한다. 캠퍼스를 지나는 사람들도 새로운 이름만을 기억한다. ‘신문’은 이름 그대로 새로운 것을 전해야 하기에, 지나간 소식에는 내어줄 공간이 없다. 하지만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신문을 생각하며, 한 번쯤은 우리와 닮은 평범한 이름을 지면에 싣고 싶었다. 지난 소식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없었는지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하여 우리신문에는 없던 부고 기사를 쓰겠다고 했다. 그것도 한참 뒤늦은 부고를 전하는 기사를. 우리학교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놓았다가 세상을 떠나자 기억에서 바랜 사람이 있었다. 또 늘 우리 사이에 있다가 예기치 못

한 일을 만나 영원히 학생으로 남은 청년도 있었다. 고인 주변의 지인을 만나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생전에는 만날 수 없었지만, 기사를 통해 그들의 따뜻한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취재를 할수록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생각보다 우리는 쉽게 빈자리를 잊고 있었다. 고 김복순 할머니의 유지가 담긴 장학금은 10년 가까이 묻혀 있었다. 또 고 권대희 씨의 마지막 소망이 담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올해에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가 그들의 삶과 이름을 잊지 않았다면 결과가 다르진 않았을까. 두 편의 기사를 마감하면서도 그 의문에는 끝이 없었다.

유독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는 시절 속에 있다. 숫자로 기록되는 기사 속에서 사람들은 죽음에 무감각해진다. 그러나 의미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잊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잊히고 만다. 뒤늦은 부고를 전하는 이유다.



만평 뒤늦은 부고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지원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